

'3도 3면' 화합한마당 열려

무주군 무풍면서 경북 김천시 대덕면·경남 거창군 고제면, 만남의 날 개최

지역 경계를 넘은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주군의 교류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풍면이 대덕산을 중심으로 인접한 경북 김천시 대덕면, 경남 거창군 고제면과 지난 1998년부터 '3도 3면'의 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10일 무풍심승지문화센터에서 제23회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무주군 무풍면 이장협의회(회장 최경서)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무주군 무풍면 김성욱 면장, 김천시 대덕면 손종일 면장, 거창군 고제면 이정현 면장 등 3개 면 이장단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25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3개 면 이장협의회가 주축이 된 가운데 △지역 화합의 목표 아래 상호 교류·주민화합에 앞장서 나가는 내용과 △정보교환은 물론,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엔 적극 협력해 나갈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자리에서 무풍면 김성욱 면장은 "대덕산을 중심으로 맺은 인연이 지역 간 협력의 원천, 번영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무주군 무풍면이 대덕산을 중심으로 인접한 경북 김천시 대덕면, 경남 거창군 고제면과 지난 1998년부터 '3도 3면'의 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10일 무풍심승지문화센터에서 제23회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교류와 화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등 난제를 극복하고 상생하는 선도 지역의 분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무주군 무풍면과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세 지역은 '3도 3면 만남의 날'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고향사랑기부

금 교차 기부를 통해 우정을 확인한 바 있다.

만남의 날은 1998년 무풍면과 고제면 이장대표가 먼저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시작됐으며 1999년 대덕면까지 3개 면 이장단 22명이 뜻을 모으며 완전체가 돼 올해 23회 만남의 날로 이어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9일 호우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호우 피해 예방 행정력 집중

최훈식 장수군수, 집중호우 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나서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9일 호우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훈식 군수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변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장계면 금곡리 동정마을과 산사태 위험지역인 천천면 남양리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9일 호우로 기반이 약해진 가운데 다시 10일 새벽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군은 9일 새벽 호우주의보 발효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

동했고, 전 부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여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하천변 및 산책로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와 함께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방송으로 주민들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빈틈없는 비상 대비 체제를 유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여름 마이산 절경

능소화·마이산 폭포·탑사 함께 절경 이뤘

10일 진안 마이산의 비경이 한 자리에서 펼쳐졌다.

40여년의 세월 동안 마이산 남부 암마이봉 절벽을 타고 35m 높이까지 자란 능소화와 많은 비가 내려야만 볼 수 있는 마이산 폭포가 탑사와 함께 절경을 이뤘다.

능소화는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양반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다림, 그리

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 애뜻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마이산 능소화는 매년 6~8월 꽃을 피워내며 관광객들의 두 눈을 즐겁게 한다.

마이산 남부가 위치한 진안군 마령면에는 지난 9~10일 2일간 약200mm의 비가 내리며 여름철에만 볼 수 있는 폭포가 생성됐다.

마이산은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안



내서인 프랑스 미술재그린가이드에서 별 세 개 만점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마이산탐사는 미국 CNN방송에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할 3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받아

무주군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육우, 한우 송아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해서 △2023년도에 자기 비용과 책임하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면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축산팀에서 9월 말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서면 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해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품목별 예상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지원한도액 농업인 개인당 3천5백만 원 / 농업법인당 5천만 원)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으로 일손 부족 해소

무주군이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로컬JOB센터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전개 중으로 지난 5월에 이어 이달에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원광대학교 학생회 소속 학생들 39명이 다녀갔다.

무주군에 따르면 학생들은 7일간 무주읍에서 13명, 적상면 13명, 설천면 13명이 배치돼 농작물 심기와 육수수확, 풀 뽑기 등의 일손을 거들었다.

학생들은 "농사 일은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농부들의 노고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회가 생기는 대로 동참하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군과 무주군로컬JOB센터는 앞으로도 전국의 대학교를 비롯한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의 숨통을 트는 방침으



로,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전북대학교 경상대학에서 100명, 8월에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8.12.~14.),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8. 21.~23.) 학생들이 무주를 찾을 예정이다.

적상면에 거주하는 임삼채 씨(56세)는 "농번기라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학생들이 함께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본 우리 청년들이 지킴이를 자처하며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